

GVCM 추진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요

(‘24.12.20.(금), 녹색기후기획과)

- (일시/장소) 12.26.(목) 15:05~18:00 /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*
*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
- (개최 목적) UNFCCC와 GVCM* 협력의향서 서명(11.28일(목))
→ 추진 방안 마련 및 2월 중 MOU 서명을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
*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(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)
- (초청 대상) 기후 분야 종사자 50여명(좌장·발제 12, 청중 38 내외)
 - ① 3개 세션(산업 생태계, 금융, 추진 체계)로 구성
 - ② GVCM에 대해 발제자 견해 발표 → 자유토론 실시

시간	식순
15:05~15:07	· 개회사(기재부 개발금융국장)
15:07~15:10	· GVCM(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) 소개(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)
15:10~16:00	· 세션 1(산업 생태계) GVCM을 활용한 산업·기술 육성 - (좌장) 김태훈 과장(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) - (발제, 5분씩) 박종호 사무총장(AFoCO) 조영준 원장(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) 정수종 교수(서울대 기후테크센터) 기업(TBD) - (자유 토론) 참석자 전원
16:00~16:10	· 커피 브레이크
16:10~17:00	· 세션 2(금융) GVCM을 통한 아시아 탄소금융 선도 방안 - (좌장) 강동수 단장(KDI) - (발제, 5분씩) 박건후 대표(NH투자증권) 유인식 파트장(IBK) 이동혁 실장(하나증권) 조흥종 교수(단국대 경제학과) - (자유 토론) 참석자 전원
17:00~17:10	· 커피 브레이크
17:10~18:00	· 세션 3(추진 체계) GVCM 추진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- (좌장) 이대호 박사(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) - (발제, 5분씩) 박순철 실장(한국생산기술연구원) 정태용 교수(연세대 국제학대학원) - (자유 토론) 참석자 전원

* GVCM(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aligned with Paris Agreement)

1. 자발적 탄소시장 정의와 국제 동향

- (자발적 탄소시장 정의) 민간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
- (국제 동향) 미국·G7·APEC 등은 기후대응을 위한 자원 동원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잠재력 인정

- ① (미국)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및 후속조치 시행 중
- ② (G7) 기후·에너지·환경장관회의는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원칙* 채택
* '23.4월 日 삿포로에서 「Principles of High Integrity Carbon markets」 채택
- ③ (APEC) 자발적 탄소시장의 보조적 역할 인정* + 시범사업 제안**
* '23년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** '24년 APEC 기업인 자문회의(ABEC)

2. 자발적 탄소시장 도전 요인

- (신뢰성 이슈) 인증 기구별로 크레딧 발행 규칙과 표준이 상이
→ 인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문 제기
- (자원 조달 방안 부재) 민간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감축 사업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 → 과소 투자 우려
※ 전문가들은 민간이 탄소 크레딧 관련 사업 수행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
- (개도국 참여 제한) 감축 사업은 아태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나, 자발적 탄소시장 논의와 인증 수수료 수입은 유럽·북미권 민간기업에 집중

3. 국제탄소시장에서 한국의 잠재력

- (잠재 수요) 높은 수준의 고탄소 제조업 비중 → 크레딧 잠재수요 大
- (특별한 경험)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(15년)하여 탄소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보유
- (기후 기술) 수소, CCUS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품질의 탄소 크레딧 창출 가능
 - 기존 업체는 조림 등 既상용화 기술 중심 → 수소·태양광 등 신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표준제정 주도 가능성

※ 탄독위 선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(23.5월) 활용시, 관련 기술 육성과 연계 가능

4. 대응 방안 및 추진 전략

- (대응 방안) 한국의 잠재력 활용 + 자발적 탄소시장 장점 극대화
→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(GVCM) 개발 및 확산
- ① (신뢰성 확보) UNFCCC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준 개발
- ② (무결성(Integrity) 충족) MDB와 협력하여 탄소감축 사업 설계·실행
- ③ (민간 투자 활성화) 공공·민간이 공동으로 투자(Co-financing)하여 개도국 탄소 감축 사업에 진출 → 기후 재원 마련 + 투자 위험 완화

1. 주요 이해관계자

- (국내) 정부, 공공기관, 민간부문(기업, NGO 등)
- (외국) UNFCCC 사무국, 참여 희망 개발도상국, 선진국

2. 주요 업무 분야

- (규제·정책) 개도국 탄소가격 메커니즘 개발·구축
- (역량 강화) 감독, 감시, 추적, 관리 시스템 구축, 공무원·이해관계자 교육, MRV 방법론 개발 등
- (MRV) 정확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MRV 절차 개발
- (금융 시장) 크레딧 유통 활성화를 위한 탄소시장 구축
- (검인증) 독립적인 기준, 검증기관(Verifier) 구축
- (국제 표준화) 파리협정 제6조 등 국제기준에 맞는 GVCM 구축
- (사업 수행) MDB, 개도국 정부, 민간 등과 사업 개발·시행
- (대외 홍보) 산업, NGO, 대중 참여 촉진 및 캠페인 실시

3. 크레딧 창출 분야

- (중점 분야) 수소, CCUS, 재생에너지, 산림, 저전력 반도체
- (기타) 농업, 어업, 국토 관리, 교통 등